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div style="text-align: right;"> <i>이제는 인천입니다</i> 2025 APEC INCHEON </div>	
		배포일자	2024년 4월 24일(수) 총 3매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 배급수연구팀장 최준호 ☎720-2211 • 담당자 양준영 ☎720-221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과정 검사결과 모두 '적합'
- 백령도 포함한 7개 정수권역의 주요지점 선정해 연간 12개 항목 검사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7개 정수권역(부평, 남동, 공촌, 수산, 강화, 길상, 백령)을 대상으로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이하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28건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법정 검사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2개 지점을 선정해 연 4회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지점은 정수장을 시작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 배수지의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 유출부와 수용가까지를 대상으로, 수돗물 전 공급과정에 대한 주기적 수질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검사항목은 수돗물 내 미생물의 불활성화에 필수적인 잔류염소를 포

함해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28건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류염소는 유지 기준(0.1~4.0mg/L)을 만족했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도 불검출 또는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부터 급수과정별 수질검사와 함께 자체적으로 수돗물 필터 변색 모니터링을 추가해 검사를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필터시험법 활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수돗물 1리터(L)를 여과한 필터의 변색 정도에 따라 I~III단계로 판정기준을 분류한다.

전체 128건 중 I 단계는 114건, I~II 단계는 12건, II 단계는 2건으로 판정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 단계는 정수지 수준, II 단계는 배수지 수준을 나타낸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는 I 단계를 초과한 시료에 대해서 X선 형광분석기(XRF,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를 활용한 추가 정밀성분 분석을 실시했고, 필터 변색의 주요 물질이 철(Fe)을 비롯한 금속 성분임을 확인했다. 결과는 각 지역 수도사업소로 통보해 향후 상수도 급수계통 시설 개선에 반영되도록 했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품질 수돗물의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수돗물의 공급 과정이므로, 인천하늘수가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수돗물 수질 검사원인 워터코디가 가정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